

윤석열, 계엄군 장성들에 "미안"계엄엔 사과없이 기존 주장 반복

생일날 군사법원 증인 출석…前특수·방첩·수방·정보사령관 보며 사과

타락한 대의제 알리기 위해 북 친 것"…체포조 14인 명단엔 "뒤늦게 알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기대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척한 모습에 양복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바로 옆 피고인석엔 광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 상당히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계엄은 무도한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준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독재와 물지마 출단핵, 입법 폭거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해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며 "나리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진 국민들에게 국정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타락한 대의제를 더 이상 믿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견제와 비판을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검토와 준비를 지시했으며, 12월 2일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계엄을 메시지 계엄"으로 아주 연성으로 생각했다"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감사원장 통해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고자 시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인 체포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종기

사용 승인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인의 체포조 명단에 대해선 "보도를 보고 김용현 전 장관에 물어보니, 동향 파악 차원에서 소재를 확인해보라고 본인이 지시했다더라"라며 "그래서 제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짓을 도대체 왜 했냐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방첩사에 대한 인사 조치에 "방첩사는 이번 일에 크게 관여한 것도 없다"며 "그런데 이걸 빌미로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문 과정에서 군검찰과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 시작부터 "검찰 측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낭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군검찰이 사실상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도 오늘 재판에 온 것 같은데, 절 위증으로 어떻게든 엎으려고 특검이 물어봐달라는 것을 군검찰이 계속 묻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군검찰 질문에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다,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종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변호인 접견 일정을 이유로 조기 퇴정을 요청하면서 일찍 마쳤다. 군사법원은 이달 3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군사법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같은 울타리를 쓰는 국방부 경내에 있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을 웃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용산 방문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만으로 알려졌다.

이재봉 기자

판에 온 것 같은데, 절 위증으로 어떻게든 엎으려고 특검이 물어봐달라는 것을 군검찰이 계속 묻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군검찰 질문에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다,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반박하고, 과한 읊주로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질문은 다 거부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증인신문은 이날 종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변호인 접견 일정을 이유로 조기 퇴정을 요청하면서 일찍 마쳤다. 군사법원은 이달 3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군사법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같은 울타리를 쓰는 국방부 경내에 있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을 웃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용산 방문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만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복잡하게 분산돼 있던

SH, '출산·양육 원스톱 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황상하 사장, "주택 공급 넘어 출산·양육 부담 덜어주는 솔루션 플랫폼으로 역할 확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미리내집' 입주민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원스톱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과제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SH는 '미리내집' 입주민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복잡하게 분산돼 있던

각종 지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했다. 임신 준비 단계부터 자녀가 만 12세까지 필요한 맞춤형 출산·양육·보육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지원 정책과 예방접종, 건강검진, 양육수당, 보육료 등의 정보를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한다.

입주민이 육아 지원 정책을 몰라 혜택을 놓치거나, 정보를 찾느라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내년 초 입주민 간담회를 열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을 개선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심귀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대산임해 해수담수화사업 준공

국내 최대 하루 10만㎥급 시설 준공, 지역 숙원 해결 및 물 공급 체계 강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2월 18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준공은 오랜 기간 가뭄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숙원을 정부, 지자체, 산업계와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성과이다.

행사에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성일중 국회의원,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이완섭 서산시장, 정광섭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김영명 충청남도 환경산업국장, 주요 입주기업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으로 준공한 시설은 역삼투(RO) 기술을 적용해 하루 10만㎥ 규모의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시설이다. 이영진 기자

2025년 농어촌물포럼 제3차 토론회 기후위기 해법 모색

'재난 대응 체계 개선해 상습침수 막아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17일 충북 오송에서 '2025년 농어촌물포럼 제3차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와 농어촌용수 관리'를 주제로, 정부, 학계, 농업인 단체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상습침수 원인을 진단하고 실무성 있는 재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맹승진 충북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김인중 사장, 김대식 한국들녘경영

소회를 위해서는 스마트·자동화 배수장 운영체계 도입과 고감한 인프라 지원이 절실히"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박진현 공사 수자원관리처장은 '농업생산기반분야 재난 대응 강화방안' 발제에서 공사의 재난 대응 사례와 앞으로의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문용주(주) 삼안 부사장은 '복합 영농지역의 배수로를 고려한 배수체계 분석기법' 발제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분석기법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진 종합 토론회에서는 김상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관계 부처, 공사, 학계, 농업인 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상습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난 안전 관리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 배수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물관리에 농업 분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진 기자

삼성물산, 4700억원 규모 호주 HVDC 공사 수주

호주 빅토리아주와 타즈매니아주를 잇는 고압직류 송전 설비 공사

최적화된 설계안으로 높은 평가… 뛰어난 기술력과 수행 역량 입증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호주에서 고압직류 송전 설비(HVDC : High Voltage Direct Current)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호주 에너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호주 연방정부와 빅토리아·타즈매니아 주 정부가 설립한 마리너스링크 (Marinus Link Pty Ltd)가 발주한 마리너스링크 HVDC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 빅토리아주 헤이즐우드 지역과 타즈매니아주 헤이브릿지 지역을 연결하는 지중 90km 해저 255km 길이 750MW 규모의 초고압직류 송전 설비를 설계·조달·시공(EPC)하는 사업이다.

마리너스링크 HVDC 사업을 통해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보

유한 타즈매니아주와 빅토리아주를 비롯한 본토 지역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양방향으로 안정적인 송전이 가능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현지 인프라 전문 건설사인 DTI(DT INFRASTRUCTURE)와 조인트 벤처(JV)를 구성해 지중 케이블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와 변화소 공사 페키지를 수주했으며 총 94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중 삼성물산 지분은 50%인 약 4700억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공자가 설계에 참여하

는 ECI과정에서 최적화된 설계안과 UAE HVDC 사업을 바탕으로 쌓은 수행 역량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물산 ES영업본부장 김성준 부사장은 "이번 마리너스링크 HVDC 프로젝트는 호주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호주를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 7월 약 2000억원 규모의 호주 빅토리아주 나와레(Gnarwarre) 에너지 저장장치(BESS) 사업을 수주하는 등 올해에만 호주 에너지 시장에서 1조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삼성물산은 2023년 벨버튼 재생에너지 허브(MREH)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호주 에너지 시장에 진출한 이래 현재까지 2.9GWh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영진 기자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선다!

전국 30개 거점 대학과 함께 1,500명 청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실시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전국 5개 권역의 30개 거점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특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사회

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62개 우수 팀에는 각 300만 원의 사업 실행 자금 지원과 함께 ▲사업 고도화를 위한 전담 코칭 ▲업종별 선배 창업가와의 1:1 멘토링 ▲실습 중심의 마케팅 교육 등이 제공됐다. 이 밖에도 권역별 대학 협의회 개최 및 기초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참여 창업가들 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예비 창업가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에서는 해외리를 활용한 산불 피해 토양 복구용 유기질 비료를 창업 아이템으로 발표한 'OCEAN FUTURE(오션퓨처)'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상을 수상한 팀에는 창업지원금 3,000만원이 전달됐다.

이승원 기자